

한가위 모래판 전남 씨름 빛났다

추석장사씨름 영암군씨름단 오창록 한라장사에 여자부 구례군청 양윤서·김다영 나란히 꽃가마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이 추석장사 씨름대회 한라급 3관왕을 달성했다.

양윤서와 김다영(이상 구례군청)은 같은 대회 여자부에서 나란히 꽃가마를 탔다.

양윤서는 22일 열린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매화장사(6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이연우를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양윤서는 지난해 추석대회에서 이 부문 2연패에 올랐고, 개인 통산 14번째 매화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김다영은 무궁화급(80kg 이하) 결승에서 이다현(거제시청)을 2-1로 누르고 생애 처음으로 꽃가마를 독차지했다.

구례군청은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안산시청에 3-1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오창록은 지난 20일 한라장사(105kg 이하)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는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국희(증평군청)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올해 2월 설날 대회와 4월 해남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오창록은 이로써 올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통산 9번째 장사 꽃가마를 탔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이광재(구미시청)와 박정진(광주시청)을 2-0으로 제압한 그는 준결승에서 남원택(영월군청)까지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올해 실업 무대에 데뷔한 이국희가 결승 상대로 나섰다, 오창록의 기세가 매서웠다.

첫판 들배지기로 한 점을 먼저 따낸 오창록은 두 번째 판에서 상대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어진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로, 네 번째 판에서는 들배지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라장사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매화장사 구례군청 양윤서(왼쪽)와 무궁화장사 김다영.



/연합뉴스

올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만 열린다

코로나 여파 초유의 축소 대회로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고교공사' 김제덕(17·경북일고)의 '파이팅 응원'을 들을 수 있지만,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의 '하트 세리머니'는 볼 수 없다.

올해 전국체전이 고등부만 출전하는 '축소 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100년 역사의 전국체전도 그 규모가 크게 작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102회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은 내달 20~25일 6일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열린다.

하지만 규모는 매우 작아진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가했는데 고등부도 제한된 올해는 2019년 대회 참가자 수의 10% 수준만 출전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01회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전국체전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체육

회장협의회와 체육계 인사들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경계했고, 결국 대학·일반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임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제덕을 제외한 양궁 대표 선수들은 모두 대학·일반부 소속이어서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에서 5위를 차지한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는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장애학생선수단.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 장애학생 조정선수단 종합 1위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대회서 금 4·은 3·동 2 획득

광주시 장애학생 조정선수단이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조정)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2일 광주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광주시 선수단이 모두 9개 메달(금 4, 은 3, 동 2)을 따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1위에 올랐다.

이선미(광주세광중 2년)는 대회 첫날 여자 500M 개인전(시각장애)에서 1분 59초 10의 기록으로 한효원(대구시)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공명진(자연과학고 2년)은 남자 1000M 개인전(지적장애)에서 은메달, 김민형(광주여고 2년)은 여자 1000M 개인전(지적)에서 은메달, 마지영(전대사대부중2년)은 여자 500M 개인전(지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광준(송광중 3년)은 남자 500M 개인전(지적)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이민준·박광준은 대회 이틀째 500M 단체전(지적)에서 1분51초00로 1위, 공명진·김충현은 1000M 단체전(지적)에서 3분34초5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공명진·김민형도 혼성 1000M 단체전(지적)에서 3분53초00을 기록, 금메달을 수확했다. 혼성 500M 단체전(지적)에서는 마지영·박광준이 동메달을 따냈다.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조정 종목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들은 익숙한 훈련 시설에서 레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록을 실시간 측정했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슬러 종목에 1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슬러는 나무보드 위에서 퍽을 흘려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다. /연합뉴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채현 세계선수권 리드 '금빛 등장'

결승서 유일하게 완등 성공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기대주' 서채현(18·신정고·노스페이스에슬리트팀)이 2021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 리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서채현은 2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1 IFSC 세계선수권대회 리드 여자부 결승에서 완등에 성공하면서 나탈리아 그로스만(미국), 라우라 로고라(이탈리아·이상 37홀드)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서채현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리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4년 대회에서 '알벽 여제' 김자민(33)이 우승한 이후 서채현이 두 번째다.

예선과 준결승에서 모두 톱(TOP·최종 홀드)을 찍고 결승에 오른 서채현은 함께 경쟁한 8명의 선수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나서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하며 완벽한 '금빛 등장'을 완성했다.

하지만 서채현은 불더링 종목에서는 예선에서 공동 37위(1T4Z 4 22)를 차지해 결승에 나서지 못했다. 스피드 종목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트위터를 통해 "놀라운 등정 끝에 서채현은 리드 여자부 결승에서 유

일하게 톱을 달성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서채현이 리드 종목의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칭찬했다.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에서 결승에 진출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서채현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 메달 전망을 한층 밝혔다.

서채현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톱 메달이 금메달이어서 너무 기쁘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든 루트를 완등해서 더욱 좋다"라며 "한국에서 새벽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보이스
2관	보이스, 모가디슈, 인질 나의 흑역사 로맨티카
3관	상처와 텐 링즈의 전설
4관	기적
5관	기적
6관	보이스
9관	모가디슈, 캔디맨
7관 씨네커풀	국영만 풍구는 꽃말과 겨울 낙서방과 얽추네 명의 용사들 알리그먼트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심크홀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극장판 마이 리틀 포니: 새로운 희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2021. 09. 24.(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

즐거움
문화산책

